

무삭제 완역본

고전목록은 많아도 어느 출판사의 번역본을 '定本'으로 삼을 만한지 용기있게 추천한 목록은 전무한 마당에, 최근 한 대형서점은 피를 내었다. 발췌본이나 축약본보다도 '완역본'을 점두에 진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권장도서 코너에는 수다한 「백범일지」 중에서 「원본 백범일지」를 올려놓았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백범일지」의 본문은 "우리는 안동 김씨로 경순왕의 후손이다"란 구절로 시작된다. 「백범일지」를 처음 公刊한 國土院 판본(1947)을 원텍스트로 삼았기 때문이다. 근자에 나온 「원본 백범일지」의 본문은 "우리 조상은 안동 김씨로 김자점 어른의 방계이다"라는 문장으로 출발한다. 율여름 집문당에서 간행한 「영인본 백범일지」는 "祖先은 安東金姓이니 金自點氏의..."로 돼 있다. 「원본 백범일지」의 텍스트는 「영인본 백범일지」의 그것과 같으며, 독자대상과 요즘의 표기법에 맞추어 교정·윤문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문호 톨스토이의 「인생독본」 역시 우수한 번역본을 물리치고 「완역본」이 점두에 배치돼 있다. 일본어판의 중역이고, 분량이 두터우며 책값이 비싸다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매장 전면에 자리했다. 책제목 앞의 '완역본'이란 수식어 덕분임이 자명하다.

톨스토이의 유고였던 「인생독본」은, 김현씨의 「행복한 책읽기」나 장정일씨의 「독서일기」에 해당하는 책이다. 동서고금의 명저들이 나오는 훌륭한 말들을 주제별로 분류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에 한 가지씩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1월 1일의 주제가 바로 "책의 선택과 독서"라는 항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일본어판의 책제목은 「讀書의 環」이다!). 에머슨, 로크, 세네카, 토로우, 쇼펜하우어의 책과 독서에 대한 '말씀'이 인용돼 있다. 우리나라의 여타 「인생독본」은 쇼펜하우어의 글을 발췌하거나 삭제하고 있는데, 배재서관의 「완역본」은 전문 그대로 옮기고 있어 이에 소개한다.

인생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속된 무리의 인간들과 대면하게 된다. 그들은 파리떼와 같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더럽히고 있다. 문학에 있어서도 인생에서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 인간 정신을 파괴하는 악서(惡書)가 허다하다. 그와 같은 문학은 좋은 책을 망쳐 버리는 문학적인 감부기 같은 무익한 수확을 가져온다. 이러한 악서는 선택된 과제와 성스러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집중되어야 할 시간과 금전을 빼앗아 버린다. 악서는 그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독을 끼치기까지 한다. 저속한 문학의 홍수가 무지한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출판되고 있지 않은가?

이보다 훨씬 유독하고 불량하며 비양심적인 속임수를 쓰내기 작가들이 저지르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표절하여 독자의 취미를 혼란시키고 참된 교양을 무디게 하고 있다.

이같은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때의 서적을 아예 읽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첫 출판이면서 마지막 출판으로 끝나버리는 그때의 책을 침을 뱉어 버리라는 것이다. 물론 어리석은

독자를 위해 쓰는 작가는 많은 독자를 얻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시대와 모든 국가의 현인들과 민중 속에 솟아 있는 천재와 성자들이 남긴 불멸의 교훈이 담긴 서적들을 읽어야 한다. 이러한 저자들만이 민중을 교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악서는 아무리 적게 읽는다 해도 적다고 말할 수 없고 양서는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너무 많이 읽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악서는 정신에 독이 되고 머리를 둔하게 한다. 그럼에도 저속한 대중들은 모든 시대의 양서를 멀리하고 현대문학의 최신 작품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는 더러움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가 없다.

출판상업주의와 대중문학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그 신랄한 비판이 우리나라의 「인생독본」에서 삭제 혹은 발췌된 이유는 '글이 좀 길다'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기 힘들다. 에머슨 등의 인용문은 원고지 한두 페이지에 불과한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셈이다.

각설하고, 최근 우리 출판계에서는 '완역본' '무삭제본' '원본'임을 밝히는 책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 「걸리버 여행기」나 「북회귀선」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완역됐고, 또 호응을 얻었다.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회극론」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아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만약 축약본이라면? 그래서 많은 출판기획자들은 온갖 백과사전을 뒤지고 있다. 그나마나 향가집 「삼대목」은 그 '삼'자만이라도 발견되어 번역된다면...

출판저널

통권 제159호 / 1994년 11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종환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종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윤희 김동필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교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금: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왜 이토록 엄청난 의학적 발견이 묻혀져야 했는가?

"도롱뇽이 할 수 있다면 인간도 할 수 있다!"

도롱뇽은 잘려나간 팔다리는 물론 심장까지도 완벽히 재생해 내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것일까? 30년에 걸친 집념의 연구 끝에 로버트 베커 박사는 인체도 재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힌다. 이 책 《생명과 전기》는 그 연구의 충실한 기록인 동시에, 한 옹고집 의학자가 타성에 젖은 기성의학계와 정부를 상대로 외롭게 벌인 드라마틱한 투쟁의 기록이다.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그의 발견을 기성의학계는 왜 이단시했으며, 정부와 군 당국은 왜 암암리에 연구의 진행을 방해했을까?

- ◆ 재생과 치유, 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전기!
- ◆ 침술, 초감각, 암의 메커니즘이 새롭게 규명된다!
- ◆ 생명의 기원은 반도체성 유기물, 빼는 압전 소자로 되어 있다!
- ◆ 지금 핵무기보다 더한 위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로버트 베커 외/공동철 옮김/값 7,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시 739-8791

생명

신간!

과 전기



THE BODY ELECTRIC

인체의 재생·치유·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아서